

문화포커스

서남권추모공원 명품 장례시설

김제시 산림분야 우수 지자체 수상

김제시는 전라북도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산림청으로부터 2016년도 산림분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분야 우수지자체 포상은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15개 기초자치단체만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의미 있는 수상실적이다. 산림분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이용 실적과 도시녹화 추진실적,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 등 3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목재생산·이용 실적, 산림휴양시설 조성·활용실적, 도시녹화조성·관리 실적, 산불방지실적, 산사태위험지역 관리 체계 구축,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등 산림분야 전반에 대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김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업무 실적을 기반으로 산림분야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을 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최상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교월동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 가져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환)는 14일 오전 새로운 청사의 출발을 알리는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대민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견식 김제시장을 비롯하여 김종회 국회의원, 도?시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식전공연과 공식 행사 및 식후행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새롭게 문을 연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2층 규모로 김제중앙병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 상담실과 넓은 주민자치실 등이 마련되어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와 주민자치기능 강화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9월부터 추진된 광명시 하안 1동(동장 한상준)과의 도?농 교류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이 함께 진행되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견식 김제시장은 "교월동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청사 개청을 모든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행복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건설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중점 지도점검에 총력

정읍시가 새만금유역 수질 환경 개선과 시민들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시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개인 하수처리시설 7천361개소(정화조 6,061 / 오수처리시설 1,600) 관련 영업자 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시는 그간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안내엽서를 발송 이행토록 하고 안내와 계고를 병행해 왔다.

오수처리시설 점검 대상은 수질 오염 사고 우려가 있는 대형 시설(50톤 이상)을 중심으로 폭기 장치 가동 여부와 맨홀부에 적치물 없이 방류수 수질 가능 여부, 내부 청소 실시 여부, 방류수 수질 적정 여부 등이다.

특히 오수관을 추락 방지를 위해 맨홀 뚜껑과 안전망 격자가 쏠려 있는지를 확인한 후 미 쏠려 시 시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 등 관련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해 불량 오수처리시설 유통으로 인한 수질 오염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추모공원 이용자 100명 대상 실시한 만족도 설문 결과 5점 만점에 4.5점

국내 장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서남권추모공원이 지난 12일로 개원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명품 종합장사시설로서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읍시 감곡면 봉서리 일원 4만여㎡ 부지에 위치한 서남권추모공원은 화장로 5기와 봉안당(개인당, 부부당) 3,800위, 자연장(잔디형, 수목형) 4천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와 유족동 산 유족전용대기실, 매장과 식당, 카페테리아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1주년 주요 성과를 보면 김제시가 지난 4월 화장장에 공동으로 참여,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고 있고 화장로는 당초 3기에서 2기를 증설 10월부터 5기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 간 공동 장사시설 설치 우수사례로 소개하는가 하면 개원 이후 화성시 등 13개 지자체 공무원 88명과 주민 222명(12회) 등 총 308명이 견학과 벤치마킹을 위해 다녀갔다.

또한 지난 8일부터 2일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대구에서 열린 전국 지자체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인접 시군 공동화장시설 설치'를

통한 세입증례'를 주제로 발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장과 함께 1억5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특히 최첨단 무공해 친환경 화장시설 등을 기반으로 완-스톱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장사문화의 제고는 물론 서남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서남권 주민들의 화장 비용은 7만원이다. 추모공원 개원 전에는 전주와 전남 광주, 충남 세성시까지 원정화장을 할 경우 지금의 비용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가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지난 1년간의 이용실적은 화장 3천 946건, 봉안당 681건, 자연장 440건 등 모두 5천067건이다. 개원 초 1일 평균 5~6건이던 화장장 이용률이 10건으로 높아지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용객 증가는 정읍과 고창 부안에 이어 올해 4월부터는 김제 시도 공동으로 참여한다. 최근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산림조합·부안군청 산불진화 대동 40여 명이 천년의 고할 내 소사에서 등산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보호 활동을 전개 주변 생활쓰레기, 공병, 담배꽂초 등을 집중 수거했다.

부안군산림조합 등 산불예방홍보 활동

부안군산림조합(조합장오세준)이 산림을 보호하려고 산불 예방에 발벗고 나섰다.

지난 12일 부안군 산림조합·부안군청 산불진화 대동 40여 명이 천년의 고할 내 소사에서 등산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와 산림보호 활동을 전개 주변 생활쓰레기, 공병, 담배꽂초 등을 집중 수거했으며 가을

철 건조기에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 재로화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준 조합장은 아름다운 자연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공익적 가치가 큰 유산이라며 앞으로 임직원들과 함께 꾸준한 산불예방 캠페인과 산림보호 활동을 할 것임을 다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다문화가족과 어울마당 '성황'

정읍시 실내체육관에서 1천여명 참석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은도)가 주관한 '제6회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구촌 어울마당'이 지난 12일 정읍시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 1천여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하리리' 다문화가족 음악밴드와 필리핀 전통춤 수브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나라별 국기 입장식을 시작으로 한 기념식이 시작됐다.

기념식 후에는 '함께 해요, 우리는 한 가족'을 슬로건으로 다문화가족과 시민이 함께 참여한 '어울마당'과 장기자랑도 펼쳐졌다.

어울마당에서는 출타리기와 팀워크게임 등 다채로운 경기가 진행돼 참여자 모두의 화합과 단결의 장이 됐고 장기자랑에는 모두 16

팀이 출전에 서로의 끼를 뽐내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각 나라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든 음식체험 부스다. 세계전통가곡 만들기 체험에 많은 참여자들이 모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오은도 센터장은 "다문화가정만의 축제가 아닌 시민들도 참여해 다양한 세계 문화를 보고 직접 체험해보며 서로 공감과 소통으로 화합을 이루는 장이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시민들이 화합하며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축제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다문화 사회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3000여 명의 스카우트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2016 스카우트 전국 훈육지도자 회의'를 개최했다.

"세계잼버리는 꿈이 이뤄지는 부안 새만금에서"

한국스카우트연맹, 전국 훈육지도자 회의 부안서 개최

2016 스카우트 전국 훈육지도자 회의가 지난 12~13일 2일 간 부안군 변산면 모항해나루가족호텔에서 300여 명의 스카우트 지도자가 모인 가운데 '2016 스카우트 전국 훈육지도자 회의'를 개최했다.

'Again 1991' 기부에 충실한 스카우트 '전 세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스카우트 발전과 2023 세계잼버리 유치를 위해 전국 스카우트 지도자들의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진행했다.

12일 개회식, 김종규 부안군수 축하, 송하진 전북도지사 특강에 이어 재난 대비 및 세계잼버리 등 다양한 주제 대미 및 지도자 간 교류시간 등 결속을 다지는 시간으로 실시됐다.

13일에는 스카우트 지도자 120여 명이 2023년 세계잼버리 국내 후보자인 부안 새만금 및 인근 과적활동장에 대한 현지 안내 및 설명을 들었다. 회의에 참여한 전국의 스카우트 지도자들은 2023년 세계잼버리 부안 새

만금 유치에 대해 공감했으며 잼버리 유치를 위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2023년 세계잼버리는 나후된 전북의 역동적인 전북으로 탈바꿈해 글로벌 부안 글로벌 전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전북이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의 스카우트 지도자들과 마음과 열정을 합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군의의회 제 2차 정례회 개최

부안군의의회(의장 오세웅·사진)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제278회 부안군의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2016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벌써부터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6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백산대회일 제정 건의문', 김종규 부안군수가 제출한 '부안군 음식판매자등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 안건을 심사하고 24~28일까지 3일간 부안군수에게 군정 현안에 대해 질문·답변을 받을 계획이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7일부터 25까지 7일간 실·과·소·읍·면을 대상으로 감사하고 오는 12

/부안=이옥수기자

정읍경찰서, '내장산 단풍절'

혼잡지역 교통관리 만전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21일간) 정읍시 내장동소재 내장산 가을 단풍절을 맞이하여 공간차단 형상을 위해 혼잡지역 집중 교통관리 활동에 만전을 다한 결과 큰 사고 없이 내장산 교통관리를 마쳤다.

내장산은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로 단풍이 만산홍명을 이루는 절정기간인 31부터~8일까지(9일간)을하는 11월5일 부터~ 13일까지(9일간)극성수기 기간으로 극심한 차량 정체를 예상하여 교통경찰 등 최대경력을 배치하여 주요 교차로에 수신호와 기존차량(버스, 화물, 승합 등)과 우회도로 이용 차량(승용차)을 분산 진입 유도하여 차량 우회조치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은 물론 사고 예방근무에 만전을 다하였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

담배연기 없는 '금연아파트' 지정

김제보건소, 하동주공아파트, 성덕하이빌, 교통휴먼시아 3개소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민)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하동주공아파트, 성덕하이빌, 교통휴먼시아 3개소를 접수 받아 지난 11월 9일 금연아파트로 지정 하였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한 하동주공아파트 주민은 "우리 아파트를 분산 진입 유도하여 차량 우회조치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은 물론 사고 예방근무에 만전을 다하였다."

의무이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방법은 거주세대 세대주 2분의 이상이 동의하는 위한 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하동주공아파트, 성덕하이빌, 교통휴먼시아 3개소를 접수 받아 지난 11월 9일 금연아파트로 지정 하였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한 하동주공아파트 주민은 "우리 아파트를 분산 진입 유도하여 차량 우회조치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은 물론 사고 예방근무에 만전을 다하였다."

아울러 하동주공아파트에서 오는 11월 18일에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